



광주에육원 원생들이 지난 2월 18일 광주무등로타리클럽 회원들이 기증한 악기를 연주해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광주무등로타리클럽 제공>

“사랑의 악기로 꿈 연주하세요”

광주무등로타리클럽, 신애원에 악기 후원

사회복지시설 신애원(광주시 남구 송하동) 아이들은 요즘 무척 떠들다. 10일 오후면 꿈에 그리던 새 악기를 받아 마음대로 연주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애원은 올해 3월 중·고등학교 7명으로 밴드부를 구성했지만 마땅히 연주할 악기가 없어 교회에서 빌린 낡은 악기로 연습을 해왔다.

아이들에게 악기를 선물해 준 이들은 광주무등로타리클럽(회장 차병호·50, 이하 로타리) 회원들이다. 로타리는 10일 신애원에 드럼 등 500만원 상당의 악기와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회원들과 함께 악기 기증 사업을 이끌고 있는 차 회장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동기가 있다.

소아암을 앓았던 9살 딸 아이를 저세상으로 보내고 실의에 빠져있던 차 회장은 음악을 좋아했던 딸 아이를 그리며 시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예술의 향기를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차 회장은 “악기 연주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딸 아이가 이

번 사업의 모티브가 됐다”며 “내 자식같은 아이들에게 사랑의 악기로 꿈을 연주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로타리는 지금까지 5천400여 만원 상당의 악기를 기부해왔다. 지난 2월 광주에육원에 3천600만원 상당의 악기와 후원금을, 나주금성원에 1천800만원 상당의 관현악기를 기증했다. 악기 구입비 5천여만원은 회비와 로타리본부에서 협력 받은 보조금으로 마련했다.

악기를 기증받은 광주에육원과 나주금성원은 각각 ‘꿈나무오케스트라’와 ‘꿈을 연주하는 작은 천사들’을 꾸려 행복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차 회장은 “로타리에서는 악기 기증을 ‘광과리 씨앗’을 심는 사업이라 부른다”며 “아이들이 악기를 열심히 배워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하고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애원 관계자는 “좋은 악기를 기증받아 매우 기쁘다”며 “밴드부원도 늘려 정말 실력 있는 밴드로 꾸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프린스호텔 경매 담합 의혹

원 소유주 “입찰자 5명 짜고 낙찰가 정해”... 김·경 수사

지난 3월 낙찰된 광주 프린스 호텔의 원 소유주가 경매과정에서 전문 경매브로커들에 의한 담합이 이뤄졌다고 최종 낙찰자인 광주 S교회 관계자 등 5명을 고소, 검찰과 경찰이 피고소인들을 경매입찰방해 혐의로 수사중이다.

9일 광주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광주지법 경매법정에서 열린 옛 프린스호텔에 대한 경매에서 응찰자 A(40)씨 등 3명과 대리인 B(42)씨 등 2명 등 5명이 담합을 한 혐의가 있어 이들을 불러 수사중이다.

이들은 사전에 서로 짜고 각각 다른 금액으로 응찰한 뒤 높은 가격을 써낸 입찰이 순차적으로 낙찰을 포기, 일방응찰자의 직상위가격을 써낸 입찰에 낙찰시켜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옛 프린스호텔 소유주 김모(32)씨는 이 때문에 호텔을 낙찰받지 못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3월 30일 이들을 고소했다.

경영난 끝에 채권자들에게 넘어간 광주시 북구 운암동 옛 프린스 호텔은 지난해 감정이 116억여 원에 법원 경매 매물로 나왔으나 네 차례 유찰 끝에 지난 3월 초께 낙찰가 47억3천여만 원에 광주 S교회로 넘어갔다.

김씨는 “일당중 3명 중 2명은 다른 일반 경쟁입찰자보다 제시금액이 높았는데, 이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1명이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이들은 법원 경매장에

서 낙찰 전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아도 투찰이 가능하다는 맹점을 노리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낙찰 전에 모든 서류를 갖추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매에서 응찰자 A씨는 입찰가 51억3천만 원을, B씨는 47억4천여만 원을, C씨는 45억3천만 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A씨 등은 “담합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현재 김·경에서 조사 중인데, 조만간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A씨 등 5명의 관계와 담합 의혹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관련서류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전남 초·중·고 절반 발전기금 후원 ‘0원’

광주 98억·전남 39억... 농어촌 학교 지원 확대 시급

지난 해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 10곳 중 5곳이 학부모와 단체 등으로부터 발전기금을 단 한돈도 후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과 학교정보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따르면 지난 해 발전기금 기부액은 광주 98억1천900만원, 전남 38억9천600만원 등 모두 137억1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광주는 14억8천900만원 늘었으나, 전남은 8억5천만원 줄었다.

건당 기부 금액은 광주가 3천54건으로 322만원, 전남은 2천695건으로

145만원 꼴이었고 학교당 평균 기부액은 광주 5천500여만원, 전남은 1천400여만원으로, 전남이 광주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목적별 기금 접수 현황은 광주지역은 교육용 기자재와 도서구입비가 절반(47.6%)에 가까운 46억7천만원이었으며, 학교시설비 확충(22.7%), 학생복지비(19%), 체육 및 학예활동비(10.7%) 순이었다.

전남지역은 기자재 및 도서구입비와 학생복지비가 13억6천만(35%)과 13억2천만(33.8%)으로 비슷했으며 교육시설비(18.7%), 체육 및 학예활동비(12.4%)가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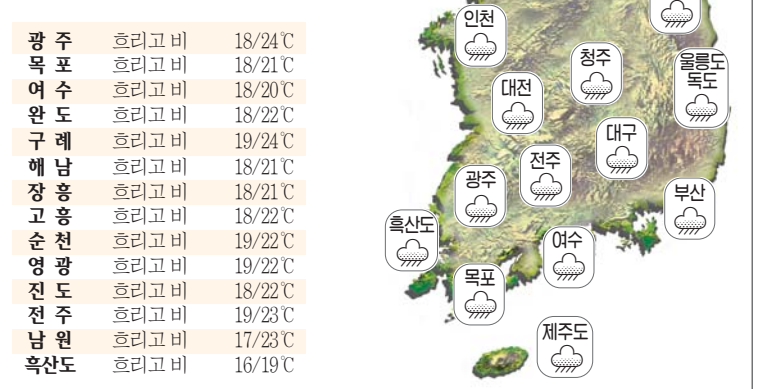
광주지역은 전체 299곳 중 초등학교 41곳, 중학교 52곳, 고등학교 30곳 등 123곳(41.1%)이 발전기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전남은 초·중·고등학교 176곳, 고등학교 104곳, 특수학교 6곳 등 모두 580곳(67.2%)이 실적 없었다.

발전기금이 학교시설 개선이나 학생 복지 등으로 지출되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 현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농어촌이나 도시 번두리 학교 대부분이 발전기금을 후원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 당국은 이들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7분 해질 19시 46분 달돋이 21시 54분 달질 07시 00분

그날 함성 깨우는 빗방울
오전부터 비가 개졌으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지역도 있었다.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해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남원	홍산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흐리고 비
18/24	18/21	18/21	18/22	19/24	18/21	18/21	18/22	19/22	19/22	18/22	19/23	17/23	16/19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5~2.5m	목포 03:48	09:04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북서	2.0~3.0m	15:26	20:49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북서	2.0~4.0m	여수 10:09	04:28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북서	1.5~2.5m	22:56	16:09

광신대학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노래방 여주인 살해범 징역 8년 선고

광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지난 2월 발생한 '노래방 여주인 피살사건'의 50대 피의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배현태)는 9일 노래방 여주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주모(5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에서 올해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피

고인과 변호인은 “살방이를 벌이다가 냉장고가 넘어져 피해자가 숨졌을 뿐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장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중형을 구형했고, 배심원 중 다수도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날 9명의 배심원단은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주요 쟁점들에 대한 공개 심리를 지켜본 뒤 다수결로 유죄 판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전남 지역 관광 상품 광고: (주)삼태관광, 캠프투어, 용도·홍산도투어, 제주 웰빙투어(고통제), 가위 내미 여행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시의 최강자. ALIVE 외국어, 주니어, 생활단어 및 교육과정 핵심단어 총망라. 1000개 이상 단어, 1000개 이상 문장.